육바라밀행·선명상으로 국민 모두 마음 평안을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해마다 봄이 다시 찾아와 훈훈한 햇살과 바람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연초록 나뭇잎들이 일렁이며 밝고 청정한 공동체를 꿈꾸고 꽃봉오리들은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화엄(華嚴)세상 속에서 어우러집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장엄하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시절의 환희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신 참 의미를 함께 되새깁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며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이어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역시 내 이웃의 고통을 편안하게 할 주인공도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괴로움이 없는 부처의 세상이 열립니다. 흔들림 없이 고요한 깨친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 인연 인과(因果)의 모습들이 오롯합니다. 걸림 없는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의 안락과 이익에 머물지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基心), 저절로 걸림 없는 무애자비행(無碍慈悲行)을 실천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덜어내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는 모두가 부처요, 보살입니다.

깨침 없는 마음으로 사바세계를 살아가면 양극단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차생고피생(此生故彼生),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마음을 깨쳐 양극단의 분별(分別)을 없애면 세상은 정토(淨土)가 됩니다. 이를 알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요, 이를 모르면 여전히 자업자득(自業自得)하는 쳇바퀴 안에 머물 것입니다. 〈중략〉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프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깨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걸림 없는 자비행(慈悲行)으로 정토(淨土)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버리면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이치를 깨달아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진실한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K문화의 원형이 되는 한국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상생과 배려,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한 K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주 열암곡 통일신라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로 새로운 미래 천년의 희망을 세우며, 불교박람회와 연등회에 주목한 젊은 청년들의 열광에 화답하여 더욱 활기차고 젊어지는 한국불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꽃피우겠습니다.

보살행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 되길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등대이시고 진리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거룩하신 석가세존 탄신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가장 밝고 영원히 안락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3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고 성인 가운데 성인이신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서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6도 중생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자유 대평등 대광명의 길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의 문에 들게 하는 진리입니다.

5월의 꽃향기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속히 벗어버리고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우리 다 함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의 등불을 밝힙시다.

나보다는 남을 이익되게 하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비와 희생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길 다 함께 발원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봉축합시다.

더불어 잘사는 정토 이루자

도진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신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사바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마음의 평화는 올곧은 신행으로 자기를 확립하면서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당당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은 더불어 살려는 마음으로 나누는 실천행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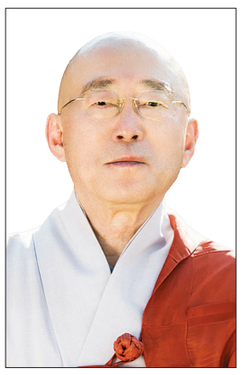
포교와 교화가 수행입니다. 용맹으로 정진하면서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합시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날을 가장 뜻깊게 하고 일대사 인연을 짓는 포교와 교화를 통한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봉축불사가 될 것입니다. 〈중략〉

부처님께서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는 가르침을 부촉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좇아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법을 세우고 그 법에 의지해 정진합시다. 자성을 찾읍시다. 그리고 자기참회를 합시다. 자성을 찾아 자기참회를 하면 이웃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웃제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수행을 다시금 점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이웃, 사회를 정화합시다. 온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정토를 만듭시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뭇 생명체가 나날이 행복하기를 서원합시다.

무명 밝히고 불성 마주하자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선분홍 연산홍이 만개한 산하로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무명(無明)을 밝힐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리에 형형색색으로 걸린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등에 불을 밝히는 것은 곧 무명을 밝히는 것이니, 연등을 다는 것은 온 중생의 무지를 깨우치고자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무명을 밝히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존재하다가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무상(無常)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니,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끊어질 인연 너머 새로운 인연이 자연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 여러 인연들이 모여 새 인연을 짓게 되었습니다. 연등이 혼자 덩그러니 걸려있을 수 없듯이,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불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오신날, 무명을 밝히고 불성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의와 자유를 사모하여온 우리 민족의 전도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광명 등불 밝히자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써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제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받들고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략〉

오늘의 우리 사회는 몹시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통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실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불안만이 증폭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받는 대중을 포교하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밝고 희망찬 연등불에 의지해 세상과 대중들이 오늘의 위기와 시련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연등이 온 누리에 두루 퍼져 만 중생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환희로운 일들만 가득 일어나기를 두 손 합장 기원합니다.

더욱 분발해 정진수행을

우인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5월의 햇살보다 찬란한 지혜와 대자대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은 허공계에 편재충만하시어 따로 구할 바가 없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중생들에게는 2500여 년 전 역사상 실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를 따르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감로 법문은 항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의 등불,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원력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과 부처님께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우리 불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정진수행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덕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